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5.06.16.(월) /
총 3매 (본문 1, 붙임 2)

자료 제공 •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김경신 부연구위원(051-797-4714)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제영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어촌주민이 직접 앞장서서 나선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쓰담당 세미나 개최, 지역민 ‘참여 소득’에 주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6월 16일 경남 통영 해양보호구역관리센터에서 ‘해양쓰레기와 지역민 참여 소득’을 주제로 해쓰담당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쓰담당 세미나는 미래 해양쓰레기 관리를 담당할 젊은 세대를 위해 정보·지식·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주제를 탐색하고자 각 세대별 전문가가 모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이다.

‘참여 소득’은 사회적 공헌 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복지, 봉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활용했으며 주민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전문 업체나 공익 근로자를 통해 수행했으나 해양쓰레기 참여 소득 사업은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직접 해변 및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 이에 대한 대가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어촌 주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해양환경 인식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여 소득 운영(경남 통영 선촌마을) △지역 주민 참여(사회적 기업 우시산) △제주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제주연구원) 등 해양쓰레기와 지역민 참여 소득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어업인이 직접 마을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은 그 효율성과 해양환경 보전인식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주민 참여형 활동이 해양쓰레기 분야를 넘어 다양한 사회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경신 부연구위원(051-797-4714) <kskim@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세미나 현장사진 1부



- 해양쓰레기 젊은 연구자를 위한 - ‘해쓰단당’ 세미나 개최 계획(제8회)

■ 미래 해양쓰레기 관리를 담당할 젊은 세대를 위한 정보,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주제를 탐색하는 세대 간 전문가 모임

※ 제6차(2025.4.21) 시민사회 성과 공유, 제7차(2025.5.12) 섬 지역 해양환경과 쓰레기 관리

□ 세미나 개요

- 때·곳 : 6.16.(월) 14:00~16:30 / 통영 해양보호구역관리센터 사무실
- 내 용
 - 해양쓰레기와 지역민 참여 소득

□ 진행 계획

시간	주제
14:00-16:30	사회 :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	20 제 목 : 환경 분야의 지역민 활동과 참여 소득 발표자 :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소장 장용창
	20 제 목 : 지역민 참여 활동을 통한 해양환경 관리 사례 발표자 :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장 지옥철
	20 제 목 :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사회공헌 활동과 소득 분배 발표자 : (주) 우시산 변의현 대표
	20 제 목 : 제주형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사례 발표자 : 제주연구원 신우석 박사
	20 제 목 : WWF 주민 자율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발표자 : WWF 생물다양성 전수원 팀장
토론	30 선촌마을 어업인, 한국해양대 목진용 교수, 통영신문 기자